

특별기고

광주여, 전라도여, 다시 시작하자



윤장현

계절은 호시절이라 매화 보내고 나니 개나리, 벚꽃 진달래가 온 산천을 물들인다.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버겁더라도 눈은 호사하고 맘도 쉼낸다. 그런데 옛그제 처러는 총성의 개표 방송을 보니 텔레비전 화면의 지도에는 우리 동네만 노란 개나리 꽃이 피었고, 다른 동네는 온통 빨간 진달래꽃이다.

2007년 대선 개표방송을 보며 "이제 전라도는 섬이네"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4년이 지나 이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80년 5월에는 김원중이 노래했듯이 전라도는 텅텅이 돌러싸여 아무도 찾지 않는 '바위섬'이었지만 30년 세월이 지난 지금 또 다시 바위섬이 된 전라도라니, 만일 광주가 없었으면 어찌 오늘의 한국이 민주국가일 수 있었겠는가!

그런 광주가 그런 전라도가 정치·사회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일시적인 현상

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는 역동성을 잃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고립된 형국이다. 거칠게 표현하면 호남 정치는 해체 국면이다. 지역 내의 모든 집단과 세력들간 결합력이 유효시한을 넘겨버렸다. 어느 집단도 새로운 비전을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과거엔 소외와 한의 땅이라는 공통된 의분이 있었다. 5·18 민주화운동을 통한 역사적 연대감이 있었다. DJ대통령 만들기를 통한 결속력과 꿈이 있었다. 그도 아닐 땐 해태 야구를 통해서라도 하나가 되었던 전라도다. 그런 전라도가 이젠 연결고리 없이 표류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를 이끌어가는 장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장기관에 공이 없으면 상대가 더불어 장기를 두어주지 않는다. 이번 대선 후보도, 차기, 차차기 대선 후보도 가시권에 없다. 꼭 전라도에서 대선 후보가 나와야만 하느냐고, 그 또한 지역주의가 아니냐고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사회를 더불어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을 배출한다는 자존심만은 이어져 가야 한다.

지역에서부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키워내야 한다. 부족함이 어찌 없겠는가? 그렇더라도 밖으로 내보낼 대표선수를 북돋아서 만들어내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가장 그런 가능성이 큰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같은 큰 정치인들도 선수(選數)만 높일 것이 아니라 자기희생과 헌신으로 결단해야 한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무슨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와 '무엇을 먹고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다. 지역도 마찬가지다. '무슨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와 '무엇으로 지역민을 먹여 살릴 것인가'이다.

전자의 해답은 분명하다. 민주적이고 서로 귀히 여기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일이다. 생태나 환경이 보호되고 문화를 향유할 줄 아는 그런 지역 말이다. 우리 지역은 소외와 한의 땅이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기회와 희망의 땅이기도 하다. 개발 속에서 덜 손상 받고 남겨진 땅, 역사의 상처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함께 치유해왔던 공동체 정신이 우리들의 자산이다.

민·관·산·학·정이 소통과 연대 없이 따로 길을 간다면 희망은 없다. 노·장·청의 조화로운 연결 없는 미래가 없다. 기업은 노사 화합의 수준을 높여서 노사의 '생존적 결합' 없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대학과 언론과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 없이는 지역 공동체는 성장엔진과 조향장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 대학은 더 말할 것 없이 지역의 미래

희망을 만들어내고 먹거리를 구축해내는 발전소다. 대학교수들이 대학내 한 줌 권력을 쥐겠다고 파워 게임에 져있거나 관급 프로젝트 따내는 일이나 연연해서는 지역에 희망이 없다.

어느 지역보다도 열악한 지역 언론의 형편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걱정이 앞선다. 시민들로부터 구심력을 얻지 못하는 언론이 다수 존재하는 지역은 불행하다. 창사 60주년을 맞는 광주일보는 그 영역이 지역의 영욕과 일치한다. 광주일보는 지역 언론의 종갓집으로서 현 전라도지역 언론상황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시민사회운동은 순수성과 헌신성만으로 향기로운 꽃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미숙한 정치운동, 시민 없는 시민운동, 관으로부터 위·수탁사업 따먹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에 견디기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시민운동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크게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지금 광주는, 전라도는 위기다. 아슬고 속삭이고 안타까운 마음들을 모아 담고 미래를 향해 소통하고 결단해야 할 때다. 그토록 치열했던 저항의 에너지를 참여와 창조로 에너지로 바꾸어 나가야 할 때다.

<전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의사>

종교칼럼

고은동 빈집



일담

스물넷, 군대를 막 제대하고 전국일주를 하겠다며 무작정 길을 나섰다. 광주에서 야간 비둘기초 기차에 몸을 싣고 부산으로, 부산에서 국도를 따라 걷고 걸어서 경주로, 구룡포를 거쳐 속초를 지나 강릉 양양 낙산사로, 폐허가 되다시피 한 강원도 어느 산골 동네로, 설악산 한계령을 넘어 강원도 정선으로, 지금은 이름도 기억하지 않는 수많은 도시를 지났다.

텐트에 배낭을 짊어지고, 땀샘 거리는 차를 어렵사리 얻어 타고다니는 여행은 3주가 넘어서자 함께 이르렀다. 몸도 마음도 전부 탈진이 된 것이다. 그때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털어 지리산 청학동 열 마을이던 고은동까지 가는 차편을 구했다. 마침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고은동에서 산(山)사람이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주간 노동자 신문에서 함께 활동했던 선배였는데 군대 대신 노동운동을 하겠다며 두 손가락을 단지(斷指)까지 했던, 자기주장과 신념이 뚜렷했던 선배였다. 그런 선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 산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에 반은 호기심에, 반은 지친 몸을 쉬게 할 요량으로 물어 물어 고은동 빈집을 찾아 들어갔다.

선배는 산사람이 다 돼 있었다. 답수룩한 머리에 허름한 바지를 입고 사람 좋은 미소가 얼굴에 띄어 있었다. 반기는 모습도 어찌 보고 오늘 또 보는 사람처럼 대수롭지 않게 녀석했다.

그 통에 나는 쉽게 고은동 빈집의 동반자가 될 수 있었다. 고은동 빈집에는 없는 게 많다. 전기가 들어 올 수 없는 산골이기에 그 흔한 TV도, 신문도, 위를 찍도 없다. 음료수나 마실만한 꺼리는 구할 수도 없고 있어도 보관할 냉장고도 없다. 원형기어바퀴 컷전을 울리던 보일러 소리도 없고 차 지나가는 마당이 있고, 일 년 사철 늘 차가우면서 새색시 같은 달을 품는 웅덩이와 있고, 밤마다 쏟아지는 별을 맞이하기에 충분한 조그마한 평상이 있고, 차곡차곡 쌓여진 장작더미에는 따뜻한 온기가 배어 있다. 그 온기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낮에는 산으로 더덕이며 취나물, 두릅, 고

사리 등을 따러 다닌다. 향이리에 쌓여 있는데 반찬이 없기에 식량조달이라는 심각한 명분이었지만 산을 타는 재미에 본분은 제쳐두기 일쑤이다. 그래도 한 주머니 가득 산채를 따서 내려오는 날이면 만식지가 부럽지 않게 배가 부른다. 선배는 비밀이라며 지리산에 아직도 산적이 산다고 한다. 등산객들의 식량을 갈취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가난한 산적들이라고 하는데 생김생김은 현상 같게 생겨 무섭지만 자기 같은 산사람하고는 안면 트고 지내는 사이리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 선뜻 믿지 못하는 내게 그 산적 중 한 명이라며 털보 아저씨도 소개해 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어찌 그리 순진한 놀림 말에 속았는지 우습다. 동화 같은 고은동 생활이었기에 그런 말도 쉽게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다.

비가 오는 날이면 산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마련이다. 그때 선배가 꺼낸 것이 친구가 선물해서 마신다는 우전 녹차였다. 술이 있었으면 아마 술을 했을 것이다. 술은 없고 차도 많이 마시면 취한다는 선배의 말에 속아 하루 종일 차를 마셨다. 나중에 뒷간에서 일을 볼 때 보니까 빈이 푸를 정도로 마셨으니 취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닐 것이다. 결국 차에 취해서 하루 종일 실실 까담 웃고 다녔다. 그 선배는 겨울이 다가오면 산생활을 정리하고 출가를 하겠다고 했다. 당시의 나는 출가란 나와 다른 인연의 사람들과 나누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었기에 선배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렇지만 이유를 묻고 싶지는 않았다. 이유를 굳이 듣지 않아도 심리적인 동조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렇게 쉽게 수긍했는지 의문이 든다. 차에 취했었을까? 아니면 고은동 생활에 취했었을까? 결국 그 선배는 고은사로 출가했다. 지금은 송광사에서 강원을 졸업하고 절제찰, 산철 가리지 않고 수행하는 선객이 되었다는 소식을 절집 풍문으로 들을 따름이다.

그때 선배와 마신 차가 내 인생에 최초의 차였다. 그때의 차 맛이 어땠는지 지금은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그때의 차 맛이 세간에서 맛본 것만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태어나서 처음 맛본 신비로운 맛이였다. 어찌보면 그 맛은 출세 간의 맛이었던지 모르나. 그 차 맛에 홀린 두 청년이 모두 출가자가 되었으니 어찌보면 고은동 빈집에 흐르던 차 향기는 거역할 수 없는 출세간의 향기였을는지..

<백련사 총무스님>

테마칼럼

- 권강과 생활
- 성 바로알기
- 호남 문화
- 법과 질서



조현종

기록문화의 꽃, 외규장각의귀 광주에 오다

지난해 5월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빗장을 열고 외규장각의귀 297책이 조국으로 돌아왔다. 1866년 병인양요 때 약탈당한 뒤 145년 만이었다. 당시 중국에 주둔 중이던 프랑스 극동함대의 함장 로즈는 600명의 수군과 전함 7척을 이끌고 조선의 강화성을 점령했다. 9명의 프랑스인 신부를 비롯한 8000여 명의 천주교도가 처단된 사건, 즉 병인박해로 비롯된 조선의 천주교 탄압이 구실이었다.

프랑스 군대는 점령 한 달여 만에 정족 산성 전투에서 참패하고 퇴각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돌아가지 않았다. 대량의 서적과 무기, 보물 등을 약탈하고 강화성의 모든 관아건물을 불태웠다. 외규장각도 예외가 아니었다. 참담하게도 이때 외규장각은 전소되고 왕실서적 5000여권이 소실되었으며 의궤 297책을 포함한 359점이 약탈되었다고 전해진다.

외규장각은 왕립도서관으로 규장각의 부속시설이다. 1776년 규장각을 설치한 정조는 1782년 다시 왕실 관련 서적의 보관을 목적으로 당시로서는 천혜의 요새였던 강화도의 고려 궁지에 외규장각을 세운

것이다.

비록 지역주민을 위한 오늘날 도서관처럼 열린 문화공간은 아니었지만, 행정과 함께 왕실의 귀한 서적을 보관할 도서관을 지어 유사시를 대비코자 하였다. 외규장각에는 어보와 어책, 어필, 의궤 등 왕실 관련 자료들이 보관되었다.

의궤는 '의식의 궤범'이란 말로 조선왕조가 국가의 주요 행사를 일정한 격식에 따라 작성한 기록물, 즉 지금의 보고서이다. 행사의 진행시점에서 경과, 소요된 물품, 인원, 의식의 절차, 행사 후에 포상 관련 내용들을 문자로 적거나 그림으로 그려 후세가 참고토록 하였다.

내용은 왕실의 중요 행사인 결혼과 장례, 연회, 왕릉 및 건축물의 조성과 관련된 의례를 망라한다. 꼼꼼하고 답답하리만큼 세밀한 의궤는 생명처럼 여겼던 조선왕조의 기록 정신이 품을거러다.

조선시대 의궤는 2종류가 있다. 임금이나 보기에 대한 어람용(御覽用)과 보관을 위한 비상용(分上用)으로 종이의 질과 색감, 장정 등에 크게 차이가 있다. 전자가 컬러 도판이라든 후자는 복사본으로 비교할 수 있지만, 내용의 철저함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전자는 규장각(외규장각)에, 후자는 도성의 춘추관과 지방에 마련된 사(史庫)에 보내졌다.

외규장각에 소장된 의궤의 대부분은 어람용이다. 초주지(草註紙)라는 당대 최고급의 종이에 해서체로 쓰고, 석채 안료로 곱게 채색을 한 뒤, 고급비단과 뉘시물림으로 장식하였다. 그 예술적 품격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조선의 기록물은 당대 최고의 결정판이었다. 특히 왕의 행차를 기록한 화려한 반차도(班次圖) 등은 오늘날의 영상자료와 같이 당시의 모습을 일체적으로 표현한 시각콘텐츠로서 마치 파노라마를 보는 듯 생동감이 배어난다.

1866년 11월 11일, 외규장각의 품격 높은 조선의 서책들은 로즈의 지휘 아래 강화도를 떠나 이듬해 파리에 도착하였고 프랑스 해군성은 바로 황립도서관(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하였다.

그리고 1975년 유학생 박병선(1926~2011) 박사가 베르사이유 분관의 파손되어 보관실에서 찾아내기까지 한 세기 남짓 중국 도서로 분류되어 있었다. 당시 그들에게 조선의 의궤는 한자로 기록된 막연한 중국책일 뿐이었다.

프랑스에서 발견된 의궤의 목록이 박병선 박사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반향효청이 거세게 일어났다. 학계와 민간의 열거한 노력과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하여 결국, 1993년 미테랑 대통령이 휘경궁

원소도감의귀 1책을 가져온 데 이어 2011년 5월,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297책이 모두 고국으로 돌아왔다. 145년만의 일이다.

프랑스 병사의 증기선에 실려 속절없이 대양을 건너야 했던 때와 달리 의궤는 당당하게 국적을 타고 귀국했다. 바다 위의 증기선이 아닌 하늘을 날아 처음으로 강화도 상공을 선회하면서 조국의 땅을 밟았다.

국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귀환한 의궤는 전시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이미 돌아온 첫해에 국립중앙박물관과, 의궤가 보관되었던 강화 고려 궁지에서 전시가 이뤄졌다.

귀환 1년을 기념하는 전시가 이 지역에서 최초로 국립광주박물관에서 2개월간(4월24일~6월24일) 개최된다. 조선시대 어람용으로 만들어진 이래 지역에 내려오는 것도 처음이다. 세계가 놀란 조선의 기록문화 가운데서도 꽃이라 불리는 외규장각의귀를 직접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다.

<국립광주박물관장·문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두 바퀴로 이어주는 소통의 길



윤진보

담양 용소에서 발원하여 목포 앞바다에 이르는 350리를 굽이굽이 돌아 흘러온 남도의 젓줄 영산강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림 같은 풍경을 한 번에 감상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개통되었다.

담양댐에서 영산강 하구둑까지 244km의 자전거도로 개통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22일 나주 죽산보에서 자전거 동호회 회원과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자전거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 '이클트'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근대에는 1817년 독일의 드라이스납작이 두 개의 바퀴를 나무막대기로 이어 그 가운데 조그마한

나무 의자에 사람이 앉아 두발로 번갈아가며 땅을 차며 달리는 '드라이스나'를 꼽는다. 그럼 우리의 자전거 역사는 얼마나 되었을까? 논란은 있지만 1883년에서 1895년 사이 윤치호가 미국에서 들여왔다는 것이 정설이다. 1905년 말에 제정된 '가로관리규칙'을 보면 아간에 등화 없이 자전거를 타는 것을 금한다는 조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무렵에 일반대중에게 자전거가 보급되었다고 짐작되니 우리의 자전거 역사도 130여년 정도 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황성신문 1906년 4월 16일자에 당시로는 큰 상금인 100원이 걸린 자전거 대회가 열려 외국인까지 참가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1920년대에 엽복동이란 사람이 자전거 대회에서 일본인을 제치고 연재나 1등을 차지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 안창남과 함께 "처다보니 안창남, 굽어보니 엽복동"이라는 동요가 유행하였

다고 하니 자전거 대회는 일제의 탄압에 시달리던 우리 민족에게 등을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자전거는 장거리 통학과 출·퇴근은 물론 무거운 물건을 실어 나르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자동차가 도로를 점령하자 이용자가 급격히 줄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와 자동차의 배기가스 증가로 지구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을 1995년 제정했다. 이를 계기로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기 시작하였고 유산소 운동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다시 한 번 자전거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편리하

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 도로와 완전히 분리된 자전거 도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2010년 가구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수단 중 자전거 이용 비율이 2.16%였다. 총 자전거 보유대수는 약 620만대로 그 중 17만대를 전담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산강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 보면 자연과 역사, 그리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까지 한 번에 해결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좋은 추억도 한가득 채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친 영산포 흥어 축제가 열려 알싸하고 톡 쏘는 흥어도 맛보고 토요일이면 죽산보에서 우리 지역 우수 농축산물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농축산물로 토요 직거래장터가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재미를 선사할 계획이다.

<전남도 건설방재국장>

無等鼓

전국에 있는 200여 그루의 토종 매화 중 60~70%가 광주·전남에 있다. '탐매가'들은 꾸불꾸불한 고목에서 풍기는 아름다운 지닌 호남지역의 토종 매화다섯 곳을 골라 '호남 5매(梅)라고 부르고 있다.

장성 백양사의 고불매(古佛梅), 선암사의 선암매, 담양 지실마을의 계당매(溪堂梅), 전남대의 대명매(大明梅), 고

전남대 용봉캠퍼스 대강당 옆에 있는 대명매는 1621년 고부현 선생이 명나라 황제로부터 선물받아 고향인 담양에 심었던 것을 그의 11대 손자인 고재천 선생이 전남대 농과대학 재임시 현재의 자리로 옮겨 심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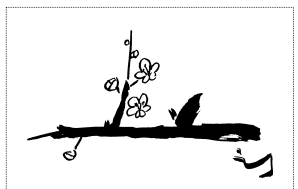
담양 가사문학관 뒤 지실마을의 계당매는 송강 정철의 넷째 아들이 심은 것으로 흥매화와 백매화가 나란히 자태를 뽐내고 있다. 그가 살던 집을 개천 위에 지은 집이란 의미로 계당이라 부른에서 유래했다.

소록도의 수양매는 수양버들처럼 늘어선 모습이 장관이다. 국내에서 가장 큰 수양매로 12개의 가지를 수양버들처럼 팔친 모습이 마치 용트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지난해 여름 폭우로 쓰러졌다가 결국 10월에 고사했다.

국내 최고의 토종 매화로 꼽히는 선암매도 고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수양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휴게 목욕장과 보존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y@kwangju.co.kr

호남 5매(梅)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亮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경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전 신 부 2200-68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지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 획 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